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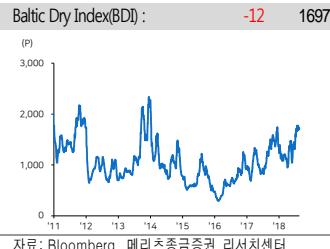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954.0	15.8	115,000	0.9	8.5	-5.7	19.9	3.1	-30.2	0.6	0.7	-0.1	22
현대중공업지주	6,074.9	20.7	373,000	-1.5	13.7	-8.1	-2.1	4.3	7.6	0.7	0.7	10.0	10.5
현대미포조선	629.7	4.7	61,700	-3.4	6.0	-25.1	-45.9	27.0	46.5	0.6	0.6	3.5	6.3
현대건설/기계	1,175.3	9.1	119,000	-2.5	-4.0	-27.7	-29.6	15.6	95	1.0	0.9	12.3	12.0
삼성중공업	4,410.0	17.6	7,000	0.0	8.5	-10.0	8.2	-9.1	-153	0.5	0.6	-1.8	0.6
대우조선해양	2,975.0	7.5	27,750	-3.8	9.0	0.7	99.6	3.7	8.0	0.9	0.7	8.2	6.8
한진중공업	1,890.0	10.7	94,500	-0.6	2.2	-2.1	20.1	4.3	14.7	0.9	0.8	4.7	5.1
한진중공업	270.4	6.8	2,550	-1.7	-10.2	-25.6	-23.0	-1.0	-58.4	0.5	0.5	-25.4	-23.5
현대엘리베이터	2,490.4	21.1	91,700	-11.8	0.1	5.5	68.6	24.1	46.8	27	22	3.7	4.1
두산밥캣	3,498.7	25.9	34,900	0.1	7.9	2.4	-2.5	12.8	12.4	1.0	1.0	8.3	8.4
현대로템	2,333.3	2.3	27,450	-11.6	0.6	-2.0	46.4	-49.3	112.4	1.7	1.7	3.6	5.7
하이록코리아	336.2	48.9	24,700	2.1	-0.6	-14.7	9.8	14.3	20.5	1.0	1.0	5.6	6.8
성광밴드	336.1	15.9	11,750	0.9	10.3	-11.7	17.7	-20.6	-160.0	0.7	0.7	0.9	2.3
태광	356.4	12.9	13,450	0.0	21.2	4.3	11.6	-22.0	41.1	0.8	0.8	25	32
두산중공업	1,692.8	14.6	14,450	-1.4	-2.7	-22.3	-5.9	-5.9	27.7	0.5	0.5	5.1	6.3
두산인프라코어	2,029.5	19.5	9,750	-0.9	-1.0	-6.7	12.2	13.6	6.2	1.3	1.0	13.1	12.6
두산엔진	119.9	4.0	3,640	-0.8	-6.1	-43.1	4.5	-24.5	-10.7	0.5	0.6	-6.7	0.3
한국항공우주산업	3,894.1	14.3	39,950	-1.1	14.1	-10.2	-15.8	-16.6	32.5	3.4	3.4	12.0	13.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54.2	11.3	24,100	-1.4	7.6	-15.7	-32.2	-26.4	35.3	0.6	0.6	2.7	4.4
LIG넥스원	697.4	9.4	31,700	0.5	-8.1	-30.1	-47.0	-80.8	21.1	1.2	1.1	8.2	12.9
태웅	305.1	4.7	15,250	3.0	3.0	-17.6	-21.2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90.8	5.2	7,070	-2.2	15.9	6.5	40.0	-6.2	150.6	22	23	4.5	13.7
한국카본	269.0	13.4	6,120	-1.8	9.9	-2.1	14.2	361.6	269.0	0.8	0.8	3.0	5.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삼성중공업, 세계 최대 에지나 FPSO 성공적 출항**

삼성중공업은 26일 에지나 FPSO가 나이지리아 라고스 현지 생산 거점에서 모듈 제작 및 탑재를 마치고 해상 유전으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현지 생산규정에 따라 라고스에 생산법인(SHIN)을 설립했음. 이번 출항으로 향후 서아프리카에서 발주 예정인 해양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위치로 알려짐. (EBN)

**Wartsila, GTT, WinGD forge alliance on LNG fuel**

글로벌 선박 기술업체 Wartsila, GTT, WinGD는 LNG를 선박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 중임. LNG는 기존 연료 대비 NOx 80%, CO2는 30%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음. LNG추진을 위해서는 엔진, 연료탱크, 연료 공급 및 제어 시스템이 중요하며, 세 업체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업체임. (TradeWinds)

**Cosco 초대형 '컨'선 스크러버 쪽으로 기운 듯**

최근 글로벌 3위 컨테이너선사로 올라선 Cosco Shipping은 환경규제에 대응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부분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전망임. 저유황유와 LNG도 선박 연료로 사용할 가능성을 검토 중인 상황임. 그러나 저유황유는 공급차질 우려, LNG는 기술적이나 비용 측면에서 문제로 선택하지 않고 있음. (선박뉴스)

**현대미포, 중 조선 제치고 컨선 추가 수주하나**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중국 장난 조선사를 제치고, XT Shipping에서 1,800TEU 컨테이너선 최대 6척을 수주함. 업계에 따르면 장난 조선사는 적당 2천만달러 중반대를, 미포는 2천만달러 후반대 가격을 제시했다고 알려짐. XT Shipping은 2,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추가 발주할 계획으로 알려짐. (EBN)

**Russia, Finland back LNG as Arctic marine fuel**

러시아와 핀란드는 북극 해상연료로 LNG를 선호함. 핀란드가 북극위원회 의장을 하는 동안 환경을 우선하며, 해상연료로 기존 연료유 대신 LNG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알려짐.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의함. 올해 4월 IMO 환경 보호위원회에서도 북극에서 중유를 퇴출시키는 방안을 동의함. (TradeWinds)

**Maersk Line tipped to join feeder boxship frenzy**

컨테이너선사 Maersk Line은 일본과 중국 조선사에 1,9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10척 발주를 위해 접촉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선선이 아닌, 나옹선(선박임대차) 형식으로 장기 용선될 계획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Maersk가 일본 및 중국 리스 업체와 제휴를 검토 중으로 알려짐. (TradeWinds)